



# 위대한 주체의 태양이 찬란히 빛나는

## 인민의 마음 오늘도 만경대고향집으로 끝없이 흐른다

4월이 왔다. 주체의 태양을 따르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마음과 마음들이 만경대고향집으로 끝없이 달리고있다. 온갖 새들의 청높은 저저 깃소리가 유서깊은 성지의 하늘가에 울리고 고향집 앞뜰에도, 뒤뜰에도 아니 온 만경대에 봄빛이 질어가고 있다. 뜨거운 추억을 실고 은은히 울리는 노래소리가 사람들을 더욱 슬umped 감정에 젖어들게 하고 눈서리를 이겨낸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설레임소리가 가슴가득 울려온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만경대를 찾는 인민군인들과 각지의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대륙과 대양을 넘어온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

만경대혁명사적관 일꾼들의 말에 의하면 어느때나 그리하지만 해마다 4월이 들어되면 만경대를 찾는 참관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난다고 한다. 만경대고향집! 만경대의 추녀낮은 이 고향집을 떠나서 어떻게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한평생의 영광찬란한 역사에 대하여 말할수 있겠는가. 지난날 우리의 농촌마을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던 수수한 이 고향집을 떠나 오늘 이 땅에 펼쳐진 무수한 창조물들과 나날이 꽃피어나는 인민의 만복을 어떻게 생각할수 있겠는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우리 인민의 수 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평도자이며 온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의 태양이십니다.》** 위대한 주체조선의 100년사에 우리 인민이 맞이한 모든 영광과 자랑찬 승리가 만경대고향집의 사립문에서 시작되였다. 바로 여기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가 그처럼 바라고바라던 위대한 태양이 찬란히 솟아올랐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새 력사가 장엄히 시작되였다. 그래서 평범한 농촌마을이었던 만경대가 조선의 만경대로, 혁명의 성지로 누리에 그 이름 떨치게 된것 아니던가. 나라찾을 큰뜻을 품고서 광복의 천리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건국세월 우리 수령님의 심중에서 떠난적 없는 사랑하는 고향집이였다. 피어던 항일의 나날 달빛같은 빛 영의 유동불가에서, 때로는 진달래꽃피게 된 시냇가에서 **《사랑가》**를



하여오신 이인위천의 숭고한 뜻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어 이 땅위에 더욱 활짝 꽃피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명도 방식 그대로 군대와 인민을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랑하는 병사들과 인민들 속에 들어가시어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시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셨다.

언제나 어버이수령님을 마음 속에 그리시며 수령님께서 념원하시던대로 조국을 부강번영하게 하고 인민을 잘살게 하시려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고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섰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끝없이 헌신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모습에서 천만군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인민사랑의 력사를 다시금 새겨안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과 함께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길을 뚫어놓으셨다. 끝없이 인민들 속에 들어가시어 인민사랑의 위대한 서사시를 엮어가시며 백두에서 개척된 단결의 전통을 더욱 빛내이시고 천만군민을 최후승리의 물결전선으로 부르셨다. 사랑하는 우리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순간의 지체를 모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똑 같은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창조와 건설의 력사는 줄기차게 이어져 인민의 행복이 꽃피고있다.

수도에 훌륭하게 일떠선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창전거리, 은하과학자거리의 현대적인 살림집에서 행복에 넘쳐있을 때, 만수무능이장이며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웃음꽃을 피울 때 사람들이여, 만경대고향집을 잊지 마시라. 그렇다. 만경대고향집은 비록 추녀는 낮아도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어버이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 력사와 더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높이 솟아있다. 사람들의 물결이 만경대고향집으로 끝없이 끊어지고있다. 조선의 새 봄이 시작되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약속해주는 만경대와 더불어 내 조국은 무궁토록 번영하리라.

글 분사기자 백영 III 사진 분사기자 림학택

부르시며 그리보시던 고향집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있어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혁명을 위해 몸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준 참으로 소중한것이였다. 항일혈전의 나날 언제 한번 잊은적 없는 그토록 그리운 고향이시건만 해방직후에는 열려진 사립문을 지킴을 나서신 그날로부터 우리 수령님 얼마나 많은 시련의 탄압과 고비를 헤쳐오셨으며 력사에 빛날 고귀한 업적을 이룩하시던가.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무장에는 무장으로!》** 라는 피땀의 애국의 호소로 백두산천연에 반일항전의 총검이 번득이게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20대 초에 벌써 백두산청년장으로 이름을 떨치시어 평범한 사람들의 한생을 모두 합쳐도 비기지 못할 결출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갖 조직된 청소년 유격대로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남북만족을, 세계 전선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인민혁명정부의 수령, 반(반일)바람의 극좌적인 회오리속에서도 주체로선

을 건결히 고수하시고 승리자들의 경축회합으로 조선혁명의 분수령을 마련한 남포회의,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의 빛나는 모범인 조국광복회 창립,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한 보천보 전투... 산중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호랑이와 같은 못짐승들도 우리 수령님앞에서는 이상하게 공손해졌고 지어 작물까지도 백두산청년장군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같은 공포에 질렸으나 간고저절했던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우리 수령님에 대하여 파다다 피진 혁명전선은 그 열매였던가. 어렵고 힘든 매일수록 대원들에게 불타는 조국을 심어주시며 혁명적동지들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어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의 새 아침을 맞이할수 있었다. 아버님의 원수, 일가의 원수, 조선민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 사생결단을 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지시고 용감히 떠나셨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렇듯 조국해방이라는 크나큰

힘을 농사일에서 벗어나게 할수만 있었지만 아까울것이 없다고, 농촌에 더 많은 농기계를 만들어보내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주체 57(1968)년 5월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또 다시 청산리를 찾아주시였다. 이날 농사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여 로력을 적게 들이면서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야겠다는 농장일꾼의 이야기를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촌에서도 8시간노동제를 실시할수 있게 기계화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청산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라는 크나큰 믿음을 주시였다. 이때 뿐이 아니었다. 어느날 농장을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꾼들에게 농촌기술혁명이 쉽게 될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일을 하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잊을수 없는 력사의 그 나날들과 더불어 청산리는 종합적기계화의 시범단장이 된 나라에 그 이름 떨치게 되었다. 분사기자 김창길

위업을 이룩하고 고향집사립문에 들어서시었던것이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스무해만에 맞게 되는 만경대의 밤, 그밤은 참으로 평화로운 밤이었다고, 세계대전이 끝나고 조국이 해방된지도 만 두달, 그러나 3천만 조선민족은 그때까지도 해방의 열광속에 그날 같이 잠겨있었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의 글줄이 삼삼히 어려우었다. 만경대고향집에서 시작된 주체 100년사는 얼마나 위대한 사변들로 이루어져있는것인가. 해방후 지체없이 당장건과 국가건설업무를 실현하시고 우리 혁명무력을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세계)를 자랑하던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를 어찌없이 깨뜨려버리시고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웅적기상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시어 이 땅위에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

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부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시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시였다. 력사의 온갖 도전과 난관을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열풍으로 길들이시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용을 온 세상에 자랑하는 령도자이시며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웃음꽃을 피울 때 사람들이여, 만경대고향집을 잊지 마시라. 그렇다. 만경대고향집은 비록 추녀는 낮아도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어버이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 력사와 더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높이 솟아있다. 사람들의 물결이 만경대고향집으로 끝없이 끊어지고있다. 조선의 새 봄이 시작되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약속해주는 만경대와 더불어 내 조국은 무궁토록 번영하리라.

우리 농민들이 기계로 농사를 짓게 하려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평생소신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야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할수 있으며 적은 로력을 가지고 농업생산을 늘일수 있습니다.》** 수십년 전 어느 날 어버이수령님께서 청산리를 찾아오셨을 때이다. 이날 농장일꾼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약도부침당 100정보당 프락토르가 몇대 있으면 기계화를 할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뜻밖의 물음에 일꾼들이 서로 열말만 쳐다보며 답변을 드리지 못하자 어버이수령님께서 는 눈발같이 빠른 비로한 프락토르로 할수 있는 모든 영농작업을 잘 라산해보라고 하시였다. 한 일꾼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더니 100정보당 프락토르가 1.6대만 있으면 될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어떻게 계산했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꾼이 년중 평균잡아 계산하였다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농민들을 힘든 농사에서 해방할수 없다고 하시며 프락토르가 제일 많이 쓰이는 시기가 어느때인가고 물으시였다. 농장일꾼은 4월과 5월에 프락토르가 제일 많이 쓰인다고 말씀드리었다. 농장일꾼의 말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물소 4월과 5월에 진행되는 영농작업은 물론 비와도 적량, 물이나 등 운반해야 할 물동량까지 계산해보시더니 자동차는 20정보당 1대, 프락토르는 100정보당 3대, 불도겔은 300정보당 1대씩 배치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청산리에서 기계화를 잘해보라고 하시는데는 없었다. 일꾼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한것은 당시 농장에는 농경지 100정보당 프락토르가 1대씩 있었는데 어버이수령님께서 는 단번에 3배로 늘이려고

도 농사를 잘 지어 만풍년을 마련하였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에 많은 프락토르와 자동차, 불도겔을 보내주신 때로부터 두해가 지난 가을 어느날이었다. 또다시 농장을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기계를 이용정형을 하나하나 알아보시였다. 갖 조직된 청소년 유격대로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남북만족을, 세계 전선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인민혁명정부의 수령, 반(반일)바람의 극좌적인 회오리속에서도 주체로선

힘을 농사일에서 벗어나게 할수만 있었지만 아까울것이 없다고, 농촌에 더 많은 농기계를 만들어보내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주체 57(1968)년 5월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또 다시 청산리를 찾아주시였다. 이날 농사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여 로력을 적게 들이면서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야겠다는 농장일꾼의 이야기를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촌에서도 8시간노동제를 실시할수 있게 기계화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청산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라는 크나큰 믿음을 주시였다. 이때 뿐이 아니었다. 어느날 농장을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꾼들에게 농촌기술혁명이 쉽게 될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일을 하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잊을수 없는 력사의 그 나날들과 더불어 청산리는 종합적기계화의 시범단장이 된 나라에 그 이름 떨치게 되었다. 분사기자 김창길

혁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하려는것은 만경대가문의 파우명이였다. 내용이 찢겨어 가루가 될지 언정 일본놈들과 싸워이겨야 하겠다고, 내가 싸우다 쓰러지면 내 아들하고 아들이 싸우다 못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반드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주체 혁명을 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북보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 아버님의 지원의 사상에 고동치는 대를 이어 계속되어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긴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지으신데 대하여 그리고 김형직선생님께서 내놓으신 지원의 사상이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드림같이 이어진데 대하여 뜨겁게 회억하신 그이께서는 혁명의 계승봉을 넘겨받아 대를 이어 수결하게 들고 나가는 사람이 참다운 혁명가라고, 지원의 뜻을 뜻없이 이어 혁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대를 이어 끝까지 바로 이것이 또한 세대가 혁명대로 주력으로 등장하고있는 오늘 우리모두의 신장속에 더욱 깊이 간직되어야 할 불굴의 정신이다.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당부말씀에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이 땅위에 기어이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고야말라 천만군민의 불타는 맹세로 뜨겁게 달아있는 내 조국의 4월이다. 분사기자 김순영

### 우리 수령님의 소원

들으신 그이께서는 물소 4월과 5월에 진행되는 영농작업은 물론 비와도 적량, 물이나 등 운반해야 할 물동량까지 계산해보시더니 자동차는 20정보당 1대, 프락토르는 100정보당 3대, 불도겔은 300정보당 1대씩 배치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청산리에서 기계화를 잘해보라고 하시는데는 없었다. 일꾼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한것은 당시 농장에는 농경지 100정보당 프락토르가 1대씩 있었는데 어버이수령님께서 는 단번에 3배로 늘이려고 알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대로부터 며칠후 농장에 많은 자동차와 프락토르, 불도겔이 발동소리 높이 울려들며 서자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뜨거워진 것을 삼키며 달려가 그것들을 끌어오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은정속에 힘든 일을 기계로 하게 된 농장원들은 그이의 크나큰 사랑에 알목증상으로 보답할 드는 결의로 가슴을 끓이며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그해는 물론 이듬해에

### 다함없는 흙모, 열렬한 칭송의 목소리

를 방문하시였다. 그때 쓰편편은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여 보기 드문 성대한 연회를 차리고 축하사를 하였다. 그는 축하사에서 김일성동지는 동방에서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리 쏘련을 피로써, 무장으로 옹호한 참다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자이며 공산주의운동의 귀감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두 열렬한 박수로 김일성동지께 충심으로 되는 감사사를 드리고자 하였다. 쓰편편이 공식식상에서

### 충심으로 되는 감사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 이듬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전 쓰편

### 진심어린 격찬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주체 83(1994)년 6월 6일 우리 나라에 찾아와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은적이 있다. 분사기자



# 당의 원대한 구상따라 주체조국의 종합적국력을 만방에 펼쳐나가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 발표 1 뜻을 맞으며

### 평화적우주개발권리를 당당히 행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 국가우주개발국을 내올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고 우주개발법이 발표된 때로부터 한해가 되었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우주개발권리를 행사하여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우주강국으로 건설하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이 발표됨으로써 우리의 우주과학자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화적인 우주개발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발히 벌일수 있는 법적담보를 받아안게 되었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며 삼천리강토우에 온 세계가 우리리보다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은 우주개발의 목적과 원칙,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의 지위와 임무가 명확히 규정되어있다.

우리 공화국의 우주개발의 목적은 국가의 리익을 고수하며 우주과학기술을 리용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수적인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다. 우주개발의

원칙은 주체성과 자립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우주를 철저히 평화적목적으로 개발하는것이다.

우주개발법은 국가우주개발국이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실현하며 우주개발분야에서 국가를 대표한다는것과 국가의 종합적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계획을 작성, 감독, 통제하며 국제우주기구, 다른 나라 우주기관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진행한다고 명백히 밝혀져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에서는 또한 우주개발기술과 우주활동으로 이루어진 성과를 국가의 리익과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목적에만 리용하여야 한다는것을 명백히 규정하였으며 우주기구발사와 관련한 통보와 안전보장, 사고조사 및 구조, 피해보상 등 우주활동에서 나서는 제한 원칙적문제들을 법적으로 담보하였다.

이밖에도 평등과 호혜, 호상보완의 원칙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 우주활동분야에서의 협조와 우주개발 및 리용과 관련한 국제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우주활동분야에서 선택성과 자율기초의 적용, 우주의 군사화학을 철저히 반대한다는 우리 공화국의 대외관계적립정을 법적으로 공고히 하였다.

우주개발계획의 작성과 실행,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국가의 중앙지도기관

인 국가우주개발국이 창설되고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한다는것을 법적으로 공고히 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우주강국의 지위를 당당히 행사할수 있게 되었다.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우주개발활동을 통하여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영예를 굳건히 떨쳐온 력사의 나날들을 돌이켜볼수록 온 나라가 끝없는 격정과 환희로 설레던 주제 101(2012)년 12월의 그날이 가슴뜨겁게 인자하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운반로켓 《은하-3》으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 9분 27초만에 《광명성-3》호 2호기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

주체조국의 첫 실용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지구를 막치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비열한 방해책동을 무비하지해 쳐갈며 기세차게 날아올랐다.

어떻게 마련된 승리였으며? 서로서로 열악하고 울고웃으며 5천년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적인 순간을 맞이한 우리 인민의 각자마다에 처해진것은 나라의 우주과학기술발전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었다.

일찍이 우주정복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우주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실수 있는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빛나는 선견지명과 탁월한 명도를 떠나서 오늘의 력사적 승리를 생각할수 없다.

온 나라의 민족사적대경사를 안아오기 위해 력사의 초행길을 헤치시며 자립적민족경제의 만년기틀을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

남들같은 열악해도 주저않았을 최약의 역경속에서 우주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선군의 위력으로 주체공명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다져주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 리심을 지니신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천변만화의 지략으로 최첨단수준에 올라선 우리의 우주과학기술을 온 세계에 알렸고 파시하도록 겉을 겉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천하의 위패도 하여 고공을 걷고있는 실용과학자들에게 주눅이 들지 말라고, 사람은 밤을 먹고 크고 과학은 실험 속에서 솟아오른다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한겨울의 혹한과 강설속에서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리도록 지혜와 담력을 주신 경제하는 원수님,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

이신 또 한분의 백두령왕의 그 믿음, 그 사랑에 떠받들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은 세계를 굽어보는 민족자존의 정신으로 운반로켓의 발사와 계단블리로부터 인공지구위성의 궤도진입에 이르는 전과정을 사소한 부족점도 없이 완전성공시키는 쾌승을 안아올수 있었다.

설계로부터 제작, 조립, 발사와 발사후관측에 이르는 모든 것이 100% 국산화된 주체의 위성!

세상의 그 어느 나라가 이토록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과 기술로 고도과학기술의 집합체이며 정수인 우주정복의 열쇠를 확고히 틀어쥐었었던가.

세계기전 외세에 나라를 통제로 빼앗겨 망국노의 실음을 숙명처럼 감수하여야만 하였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자주적인 우주개발국의 주인이 되었다.

우리는 인민의 꿈과 리상이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는 오늘을 보며 보다 휘황찬란할 래일을 더욱 확신하고있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 따라 주체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며 이 땅에는 온 세계가 우리러 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이 반드시 일떠서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명 흥 속

더 많이, 더 높고, 더욱더 통쾌하게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최첨단과학기술의 정수를 이루는 우주과학기술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위성과 운반로켓들의 보유를 강성국가의 체모를 갖추기 위한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고있습니다.》

1년전 4월 1일, 경제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과 국가우주개발국을 내올데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과 결정이 대의원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

뜻깊은 이날을 맞는 우주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 련관부문의 인공들과 로동계급의 심장마다에는 경제하는 원수님의 우주강국건설구상을 받들어 각종 실용위성을 더 많이, 더 높이, 더욱더 통쾌하게 쏘아올림으로써 최첨단수준에 올라선 선군조선의 우주과학기술의 위력을 만방에 펼쳐갈 불같은 열의가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개발법과 국가우주개발국을 내올데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과 결정이 대의원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

뜻깊은 이날을 맞는 우주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 련관부문의 인공들과 로동계급의 심장마다에는 경제하는 원수님의 우주강국건설구상을 받들어 각종 실용위성을 더 많이, 더 높이, 더욱더 통쾌하게 쏘아올림으로써 최첨단수준에 올라선 선군조선의 우주과학기술의 위력을 만방에 펼쳐갈 불같은 열의가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 과학기술로마를 타고

만만년민족사의 특대사변을 떠올리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우주를 쫓아온 환희의 순간이 지금도 나의 눈앞에 여려와 붉어있는 격정을 금할수가 없다.

선군조선의 종합적국력을 과시한 첫 실용위성의 성과적발사는 력사의 초행길을 헤치시며 자립적민족경제의 만년기틀을 마련하고 주체공명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사시켜주시였으며 우리 식의 우주산업이 나아가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제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명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우주개발부문에 쌓아올린 철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제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과학기술로마의 날개를 활짝 펼치고 주체과학기술발전의 앞장서 내달리는 기수답게 우주과학연구소에서 눈부신 비약을 이룩하였다.

국가우주개발국 부국장 김 인 철

### 최첨단돌파전에 박차를 가하여

세 세기에 들어와 세계적으로 우주에로의 진출이 더욱 본격화되고 그 수도가 다국화되어가고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주개발이 하나의 세계적 추세로 되고있는 이 시대적요구에 맞게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과 국가우주개발국을 내올데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과 결정이

채택되었다.

이것은 당당한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사업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우주강국으로 건설하려는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며 철석의 의지이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어주신 새 세계 산업혁명의 불길, 최첨단돌파의 열풍을 세계에 일으며 세계적인 우주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냄으로써 통신위성을 비롯한 여러가지 실용위성들과 보다 위력한 운반로켓들을 연구 개발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볼데 대한 요구를 높이 들고 두뇌진, 실력진을 함있게 벌려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교수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밀접히 결부시켜나감으로써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우주강국으로 건설하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부총장 김 일 광

### 온 세계가 우러러보게

우리의 우주개발사업은 청춘기에 들어섰다고 할수 있다.

지금도 20대, 30대의 맹장한 우주정복자들의 모습을 볼 때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긴 불멸의 권필이 나의 가슴을 울려준다.

《뚝발하어 또 뚝발하어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

참으로 언젠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수 있다는 고귀한 진리를 내놓고서도 교육사업을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신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명도의 손길이 있었기에 나라의 종합적국력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할수 있는 민족적인 무궁한 열매를 맺어줄수 있었으며 만야남산의 불멸의 권필이 나의 가슴을 울려준다.

우주과학기술인재들이 더 많이 키워내는데는 우리 교육자들이 지닌 임무이며 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강자조 리성 균



### 국가우주개발국 마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 마크는 경제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국가우주개발국 마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을 상징하는 공식증표로서 국가우주개발국의 성격과 사명, 지위, 그 발전전망을 담고 있다.

마크는 진한 푸른색원형으로 된 지구와 하늘배경의

### 국가우주개발국 마크 그 립 플 이

북두칠성, 《DPRK》(푸른색)와 《NADA》(흰색), 《국가우주개발국》(흰색), 연한 푸른색머모양의 위성자리로 형성되었다.

마크의 중심부분에 부각된 영문축약어인 《DPRK》와 《NADA》는 나라의 우주개발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국가우주개발국의 지위를 상징하고 있다.

마크의 바탕색인 진한 푸른색은 젊음이 약동하는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인 우주개발정성을 담고있다.

국체도와 적도케도를 형성한 연한 푸른색머모양의 위성자리들은 우주개발사업의 모든 단계에 우리 위성을 계속 쏘아올리려는 우주개발진

### 메히요로 동당 전국지도자가 조선로동당 대표단을 만났다

알베르토 아야야 쿠에르테스 메히요로동당 전국지도자가 3월 26일 새 사회건설에 관한 세계정당들의 제18차 토론회에 참가한 안근성 메히요로주제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을 만났다.

석상에서 단장은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메히요로동당 전국지도자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전국지도자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제하는 김정은 동지께 지도부와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며 드림것을 단장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새 사회건설에 관한 세계정당들의 제18차 토론회에 조선로동당대표단을 파견하여 주신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조선로동당이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내놓은 정책들과 그 실행을 위한 조치들은 가장 정당한것이다.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는 누가 진정으로 평화와 통일을 바라며 누가 진정과 분열을 피하는가를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메히요로동당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모든 정책과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앞으로도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낼것이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건강하시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기조로 조선에서는 경제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을 이끄시는 고귀한 사업에서 계속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

조선로동당 경제, 무역 및 과학기술협회의위원회 몽골국 위원장인 하트마진 바트볼가 공업 및 농업상과 일행이 3월 31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구본태 무역성 부상과 마니바드라 힌 간블드 주조 몽골 특명전권대사가 맞이하였다.

이날 공화국정부에서는 몽골 공업 및 농업상과 일행을 위하여 연회를 마련하였다.

### 인민의 지향이 잘 반영된 격동적인 모란봉악단공연



은 나라에 약동하는 기상을 북돋아주고 비야의 슬픔을 다해준 열화같은 춤의 마음... 그대의 모든 심정속에 숨어 번진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경제하는 원수님의 안병을 간직히 바라하는 마음, 경제하는 원수님을 모시였으며 우리의 미래는 창창하다 신념이 고지였다. 그 불라는 총정의 맹세, 진실하고 열렬한 사랑강정을 높은 예술수준에서 훌륭히 형성한 노래들은 공연마다 사람들의 심금을 짝 울려잡았다.

수도려계문수부에서 일하고 있는 한 로동자는 공연을 보고 나니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헌신지도의 길을 걷고있는 경제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로고 가 가슴찌땀이 어려와 눈물이 젖어드는것을 금할수가 없었다. 가슴들의 높은 예술적기량도 공연을 훌륭하게 장식하였지만 공연무대에 울린 한국학곡의 노래가 나의 심정, 우리 인민의 심정을 진실하게 대변한것에서 더욱 좋았다. 모란봉악단공연은 경제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마르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억세게 다져준 훌륭한 공연이라고 자기

어어질듯, 넘어질듯 따르시며 노래를 부르던 아이들... 그들모두의 심정속에 숨어 번진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경제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워가고있는 우리 인민의 커다란 긍지와 행복감, 경제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는 신심을 더욱 북돋아주는 여러 종목들도 관람자들의 가슴가슴을 커다란 흥분으로 들끓게 하였다.

관람자들은 노래 《희망찬친나의 조국아》, 《달려가자 미래로》, 《우리 사랑한다》를 들으며 인민의 희망, 탄복이 꽃피는 우리 조국, 경제하는 원수님의 품에 안겨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느끼었고 더욱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며 끝없는 환희로 설레었다.

한 대학생은 나는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제일 좋아한다. 모란봉악단공연은 우리 청년들에게 유쾌한 새 힘과 기백찬 열정을 안겨주고 창조적 의의의 나래를 달아준다.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조국의 희망찬 래일을 앞당겨

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학습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가겠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심정속에 새겨준 녀성독창과 방창 《용사들》, 녀성중창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도 관람자들의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모란봉구역에서 살고있는 한 녀성은 모란봉악단공연은 평범한 우리 가정주부들에게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사회와 집단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안겨준다. 정말 모란봉악단의 공연이 제일이라고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터놓았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확고부동한 의지, 그이의 두리에 일일단결하여 백두의 혈통을 뜻깊이 이어갈 천만민국의 철석의 맹세가 끊이지 않는 녀성4중창 《그이 없인 못살아》, 녀성중창 《우리는 당심밖에 모른다》도 모든 관람자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며 공연을 훌륭하게 장식하였다.

모란봉악단공연이 넘겨온 이 너무도 깊은것이어서 날마다 공연이 끝난 다음에도 사람들은 4.25문화회관에서 쉬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한다.

모란봉악단공연을 본 온을 역원히 터놓았다. 공연은 우리모두에게 삶의 교과서를 안겨주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 지혜와 힘과 열정을 강리리 바쳐가었다.

이렇듯 사는 곳과 달리사는 서로 달라도 관람자들의 심정속에 울려나오는 목소리는 한결같다.

참으로 이번 모란봉악단공연은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지향에 더욱 불을 달고 경제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천만민에게 비야의 나래를 더 활짝 펼쳐주며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낳는 무한한 힘을 안겨주었다.

우리 조국의 자랑 모란봉악단 앞으로는 시대와 인민의 지향을 그대로 담은 아름다운 열정적인 노래소리도 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위한 우리의 대진군을 힘차게 떠밀어줄것이다.

글 조 함 미  
사진 본사기자 리 진 명

### 몽골 공업 및 농업상일행 도착



조선로동당 경제, 무역 및 과학기술협회의위원회 몽골국 위원장인 하트마진 바트볼가 공업 및 농업상과 일행이 3월 31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구본태 무역성 부상과 마니바드라 힌 간블드 주조 몽골 특명전권대사가 맞이하였다.

이날 공화국정부에서는 몽골 공업 및 농업상과 일행을 위하여 연회를 마련하였다.

### 인디아에 갔던 보건성대표단 귀국

인디아의 뉴델리에서 진행된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 소아마비근절확정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가하였던 보건국보건상을 단장으로 하는 보건성대표단

세계보건기구 립시태리대표가 마중하였다.

비행장에서 장준상 보건성 부상과 나지라 이르티코바 주조

【조선중앙통신】

4월 중 일자 기 현 상

4월에 일기와 기타 지구물리적으로 따라 불리한 날과 시간(명양시간)은 다음과 같다.	30일(12-14시), 청진지방
경양지방	2일(13-15시), 4일(14-16시), 8일(19-21시), 12일(10-12시), 15일(5-7시), 18일(13-15시), 23일(19-21시), 25일(9-11시), 30일(12-17시).
3일(14-16시), 7일(18-20시), 12일(10-12시), 17일(13-15시), 22일(18-20시), 25일(9-11시).	

#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제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자

## 새 학년도를 맞은 전국의 일군들과 교육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부문에서는 혁명의 요구,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중등일반교육을 비롯한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강령이 집행되는 뜻깊은 올해 새 학년도 개교준비사업에서 평성시 두무고급중학교가 많은 일을 하였다. 소식을 듣고 이목을 끌었다.

우리는 학교에 들어섰을 때부터 이곳 교육자들의 잔고 열정적인 일분새를 대변해 드리고 싶었다.

우리를 반겨맞아준 부교장 박형주동무의 얼굴에는 별다른 환희가 없었다. 그는 우리에게 개교를 앞두고 자기 학교의 추수반학생들이 시적인 추수경전에서 종합 1등을 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방금 날아왔다고 자랑삼아 들려주는 것이었다. 무슨 일에서나 언제나 앞서려는 이곳 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승벽심이 저도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자서처럼 끌어당겼다.



새 교육강령의 요구에 맞게 교수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모란봉구역 인흥초중급학교에서- 본사기자 찍음

## 행복의 꽃대문에 비낀 열정

### 사리원시 윤하소학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는 교원입니다.》 얼마전 사리원시 윤하소학교에서는 학교적인 교수경연이 진행되었다. 교수경연에는 개학날 신입생들앞에서 첫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교원들이 출현하였다. 경연에 출현한 리명순, 강혜숙, 박양숙교원들의 수업이 정말 실감이 있었다. 다대제편찬물들을 활용하며 능숙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출현자들도, 교수합평회에 참가한 교원들도 열정적이었다.

어떻게 하면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강령의 요구대로 교수의 효과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는가. 모두의 사색과 탐구가 여기에

## 보답의 맹세로 들끓는 교정

### 평성시 두무고급중학교에서

우리는 박형주동무를 통하여 학교가 어떻게 되어 최근년간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데는 감사의 마음을 감동깊이 들게 하였다.

지난 시기 이 학교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 별다른 눈여겨 볼 성과가 없지 못하였다.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과정이 다름아닌 이들의 일본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한 뜻깊은 계기였다.

(우리 학생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실시라는 꿈만 같은 현실을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충정의 보고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교육자자격이 있겠는가.)

지난 시기의 낡은 사업방법에 대해 심각히 돌이켜본 학교일군들은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이 악하게 달라붙었다.

이들은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 속에 교육규율을 세우는 사업과

교수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사업, 교육조건과 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설계해나갔다. 특히 일군들부터 밤을 새워가며 새 교육강령학습에 앞장섰다.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교원들모두가 새 학년도 교수준비사업에 앞장서 끝없는 목표를 내걸고 적극 떨쳐나섰다. 새 교재내용에 완전히 정통하기 위하여 퇴근도 미루어가며 열심히 학습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교수준비사업에 이악하게

교수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사업, 교육조건과 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설계해나갔다. 특히 일군들부터 밤을 새워가며 새 교육강령학습에 앞장섰다.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교원들모두가 새 학년도 교수준비사업에 앞장서 끝없는 목표를 내걸고 적극 떨쳐나섰다. 새 교재내용에 완전히 정통하기 위하여 퇴근도 미루어가며 열심히 학습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교수준비사업에 이악하게

교수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사업, 교육조건과 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설계해나갔다. 특히 일군들부터 밤을 새워가며 새 교육강령학습에 앞장섰다.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교원들모두가 새 학년도 교수준비사업에 앞장서 끝없는 목표를 내걸고 적극 떨쳐나섰다. 새 교재내용에 완전히 정통하기 위하여 퇴근도 미루어가며 열심히 학습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교수준비사업에 이악하게

물리, 생물, 화학 등의 실험실습 실험을 훌륭히 꾸려놓고 시적인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여러가지 교수문헌들도 사 용하기 편리하게, 교수사업에 실 지 도움이 되게 하나하나 알성있게 꾸며내었다.

한편으로는 학교를 꾸리는 사업에 또 깊은 관심을 돌려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 교원들의 자질이 높아지고 교수안수준이 올라갔으며 교수방법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줄기차게 벌어졌다.

수확과목을 담당하는 교원 정영심동무는 애가 어머니이지만 교 수준비사업에 이악하게 달려들어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10월 8일 모범교수자인 교원 김순희 동무는 나이가 많지만 새 과목을 맡아안고 열정에 넘쳐 교수준비를 꾸준히 해나갔다. 분과 장정원인 로영진, 리선철동무들은 자신들부터가 실력을 높여야 교 원들을 올바르게 이끌어나갈 수 있다

수확과목을 담당하는 교원 정영심동무는 애가 어머니이지만 교 수준비사업에 이악하게 달려들어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10월 8일 모범교수자인 교원 김순희 동무는 나이가 많지만 새 과목을 맡아안고 열정에 넘쳐 교수준비를 꾸준히 해나갔다. 분과 장정원인 로영진, 리선철동무들은 자신들부터가 실력을 높여야 교 원들을 올바르게 이끌어나갈 수 있다

수확과목을 담당하는 교원 정영심동무는 애가 어머니이지만 교 수준비사업에 이악하게 달려들어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10월 8일 모범교수자인 교원 김순희 동무는 나이가 많지만 새 과목을 맡아안고 열정에 넘쳐 교수준비를 꾸준히 해나갔다. 분과 장정원인 로영진, 리선철동무들은 자신들부터가 실력을 높여야 교 원들을 올바르게 이끌어나갈 수 있다

고 하면서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학습하였다. 교원대중이 기부되니 실험실 습에 필요한 기구들과 시약들도 충분히 마련되었다.

교장 김병수동무는 신심에 넘쳐 우리에게 말했다.

《뜻깊은 새 학년도를 맞은 우리들의 가슴은 흥분과 격정으로 설레고있습니다. 개교준비를 착실히 해온것만큼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게 학생들을 잘 키우겠다고 지금 교원들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다음 해에 꼭 다시 오십시오. 그때 또 새로와진 학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성과뿐만아니라 교육조건과 환경에서도 더욱 훌륭해진 모습을 말입니다.》

우리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을 충성다해 빈배어갈 보답의 한마음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성시 두무고급중학교 일군들과 교원들과 같은 교육자들이 내 조국에 수없이 많기에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 세대를 위한 언제나 밝은 미래만 있으리라는 확신으로 하여, 본사기자 김 병 훈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을 충성다해 빈배어갈 보답의 한마음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성시 두무고급중학교 일군들과 교원들과 같은 교육자들이 내 조국에 수없이 많기에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 세대를 위한 언제나 밝은 미래만 있으리라는 확신으로 하여, 본사기자 김 병 훈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을 충성다해 빈배어갈 보답의 한마음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성시 두무고급중학교 일군들과 교원들과 같은 교육자들이 내 조국에 수없이 많기에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 세대를 위한 언제나 밝은 미래만 있으리라는 확신으로 하여, 본사기자 김 병 훈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을 충성다해 빈배어갈 보답의 한마음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성시 두무고급중학교 일군들과 교원들과 같은 교육자들이 내 조국에 수없이 많기에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 세대를 위한 언제나 밝은 미래만 있으리라는 확신으로 하여, 본사기자 김 병 훈

## 평천구역 간성초중급학교에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올해의 새 학년도를 맞이한 평천구역 간성초중급학교의 교원들은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설레이고있다.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켰던 지난 1년간은 온 집안이 우리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심장으로 받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가슴벅찬 나날이었다.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고 풍부한 경험도 쌓아졌다. 새 학년도에 도달하여 할 목표를 뚜렷이 세운 교원들모두가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야무리 교육내용을 잘 구성하고 현대적인 실험실습설비들을 갖추어놓아도 교원들의 자질이 낮으면 학생들을 제습하는 인재를 키울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를 밝히안고 새 학년도준비를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리던 올해초부터 학교의 교원들은 참으로 불같은 나날들을 보냈다.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강령 집행에 위한 교수강습, 교재와 참고서들에 대한 연구, 교수안작성과 관련된 제... 학교자체의 힘으로 자연과 학습습성, 기초기술습성 등 실험실습실습도 훌륭히 꾸려놓았다.

이 나날은 이곳 교육자들이 모두가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신장으로 삼고 정감한 나날이요 하였다.

특히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수방법을 구현하고 교육학적인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성한 교수안작성을 위한 연구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모든 교원들이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파시해갈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교정의 열정넘친 말에도 새 학년도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를 위한 애국사업에서 더 큰 결실을 맺는 우리 교육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그러졌다.

본사기자 공로 혁

《모든 교원들이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파시해갈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교정의 열정넘친 말에도 새 학년도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를 위한 애국사업에서 더 큰 결실을 맺는 우리 교육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그러졌다.

본사기자 공로 혁

현상에 대한 관찰과 실습을 통하여 적극적인 탐구정신과 탐구방법을 체득시켜주고 쓸모있는 산지식을 실수있게 되어있는 교재내용들을 연구하면서 누구나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발달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구성된 교육내용들은 교육자들이 교수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할것을 요구하고있었다. 교장 차수동무는 비롯한 이곳 교육자들은 새로운 편집,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수안작성에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분발하고 또 분발하였다.

학생들의 외국어활용능력을 더 높여주는데 모를 막고 교수안을 작성한 최영숙동무, 깨우침은 교수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수많은 참고서들을 탐구하여온 원금옥, 리은경, 평향미동무들과 새 과목을 맡아가지고 교수안작성을 훌륭하게 완성한 김일선동무는 비롯한 교원들이 새 학년도 교수준비에서 거둔 성과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를 위한 애국사업에서 더 큰 결실을 맺는 우리 교육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그러졌다.

《모든 교원들이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파시해갈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교정의 열정넘친 말에도 새 학년도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를 위한 애국사업에서 더 큰 결실을 맺는 우리 교육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그러졌다.

본사기자 공로 혁

《모든 교원들이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파시해갈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교정의 열정넘친 말에도 새 학년도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를 위한 애국사업에서 더 큰 결실을 맺는 우리 교육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그러졌다.

본사기자 공로 혁

《모든 교원들이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파시해갈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교정의 열정넘친 말에도 새 학년도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를 위한 애국사업에서 더 큰 결실을 맺는 우리 교육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그러졌다.

본사기자 공로 혁

## 새 의무교육강령과 그 집행

◇ 새 학년도부터 전국의 유치원, 소학교, 초급, 고급중학교들에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강령이 집행되게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후대중시, 교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전국의 교육부문 일군들과 유능한 교육자들, 교육과학적인 연구자들, 교육도시출판사의 편집일군들이 망라된 연구집단에서는 중등일반교육과정안을 작성하는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위한 통일적이며 전일적인 새 교육강령을 내놓게 되었다.

새 의무교육강령은 우리 당의 교육중시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며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이다.

◇ 새 의무교육강령을 철저히 집행하는것은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질적수준을 담보하고 그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책임이고 고되고 중요한 사업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수요양사업에서 기본은 교육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는것입니다.》

필요한 교육학적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새 세대들을 능력이 있는 혁명인재로 키워낼수 없다.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강령에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 인식과정의 합법칙성에 맞게 새 의무교육의 총적목표와 교종별도달목표, 학년, 학과목별도달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있다.

이에 기초하여 학교전교육으로부터 고급중학교에 이르는 모든 교종의 교육내용에서 체계와 순차를 명백히 하고 계승성과 통일성, 연관성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강령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교종별, 학과목별사이의 연관성과 순차성, 균형을 보장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새 의무교육의 총적목표와 교종별도달

목표, 학년, 학과목별도달기준을 성과적으로 달성할수 있다.

◇ 교육강령은 그 누구도 어길수 없는 법적과제이다.

모든 유치원, 학교들에서는 교육행정사업을 강화하여 배워주는 과목들에 대한 수업시간표 작성사업을 잘 짜고들어야 한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심리적특성과 인식요양효과를 고려하여 중요한 과목들은 인식요양과 제일 좋은 시간에 넣어야 하며 과목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수업시간표를 합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각급 학교교원들은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학적과정을 정확히 거치지 못하기 위하여 수업방법, 학습, 보충수업, 실험실습 등 교육강령에 예견된 형태별교수법을 도입하기 집행하며 특히 교수내용을 소화시키도록 하기 위한 교수형태를 옮겨 적용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교육강령을 철저히 집행하는 강한 혁명적규율을 세워야 한다.

교육강령은 누구도 제멋대로 변경시킬 리가 없다.

학교들에서는 교육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여 교육강령에 제시된 내용을 정확히 줄수 있도록 교원들의 교수준비로부터 학생들의 소화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전정정을 철저 지도통제하여야 하며 과정안을 마음대로 변경시키거나 교수진도를 어기는 무규율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학교에서 교육규율을 엄격히 세워 교육강령을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당조직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교육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교육자들은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강령을 철저히 집행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떠메고갈 능력이 있는 혁명인재로 튼튼히 키워야 한다.

##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여

### 함경북도에서

함경북도에서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여 교육자들의 물질기술적위생을 특신훈 강추어주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얼마전 도에서는 학교지원을 위한 교육수단들과 교구비품들, 많은 대학들과 시(구역), 군의 각종 학교들을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시(구역), 군들에서 학교지원사업이 실속있게 진행되도록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우리는 나라의 튼튼한 경제대대에 의거하여 교육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뜻깊은 올해의 학교지원활동을 계기로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때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를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학교지원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모든 교원들이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파시해갈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교정의 열정넘친 말에도 새 학년도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를 위한 애국사업에서 더 큰 결실을 맺는 우리 교육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그러졌다.

본사기자 공로 혁

《모든 교원들이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파시해갈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교정의 열정넘친 말에도 새 학년도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를 위한 애국사업에서 더 큰 결실을 맺는 우리 교육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그러졌다.

본사기자 공로 혁

《모든 교원들이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파시해갈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교정의 열정넘친 말에도 새 학년도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를 위한 애국사업에서 더 큰 결실을 맺는 우리 교육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그러졌다.

본사기자 공로 혁

《모든 교원들이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파시해갈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교정의 열정넘친 말에도 새 학년도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를 위한 애국사업에서 더 큰 결실을 맺는 우리 교육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그러졌다.

본사기자 공로 혁

내일도 교육사업을 높여왔다. 도당책임일군을 비롯한 도당 위원회 일군들이 도당의 교육기 관들을 찾아 교육사업에서 실질적으로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도에 도인 민위원회에서는 혁명의 요구,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각종 학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시(구역), 군들에서 학교지원사업이 실속있게 진행되도록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우리는 나라의 튼튼한 경제대대에 의거하여 교육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뜻깊은 올해의 학교지원활동을 계기로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모든 교원들이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파시해갈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교정의 열정넘친 말에도 새 학년도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를 위한 애국사업에서 더 큰 결실을 맺는 우리 교육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그러졌다.

본사기자 공로 혁

《모든 교원들이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파시해갈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교정의 열정넘친 말에도 새 학년도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를 위한 애국사업에서 더 큰 결실을 맺는 우리 교육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그러졌다.

본사기자 공로 혁

《모든 교원들이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파시해갈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교정의 열정넘친 말에도 새 학년도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를 위한 애국사업에서 더 큰 결실을 맺는 우리 교육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그러졌다.

본사기자 공로 혁

《모든 교원들이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파시해갈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교정의 열정넘친 말에도 새 학년도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를 위한 애국사업에서 더 큰 결실을 맺는 우리 교육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그러졌다.

본사기자 공로 혁

《모든 교원들이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파시해갈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교정의 열정넘친 말에도 새 학년도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를 위한 애국사업에서 더 큰 결실을 맺는 우리 교육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그러졌다.

본사기자 공로 혁

환경을 더욱 개선할수 있게 하였다. 화대군과 무산군에서도 학교 지원사업을 잘하였다.

군에서는 여러차례의 협의회를 조직하고 후원단체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수업종에 달하는 현대적인 교육설비들과 교구비품들을 군인의 학비로 보내주었다.

특히 군의 책임일군들부터가 학교들을 맡고 후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군인에 교육수 시(구역) 그 어느때보다 더욱 높이 발휘되게 하였다.

교육자들의 불결은 도급기 관, 기업소들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도당총련회위원회 일군들은 선군시대 일군들의 마땅한 본분이고 의무라고 하면서 교육부문에 필요한 많은 량의 물자들을 마련하여 보내주었으며 도당장관리원일군들은 교육지원사업에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이 사업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우리는 나라의 튼튼한 경제대대에 의거하여 교육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뜻깊은 올해의 학교지원활동을 계기로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모든 교원들이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파시해갈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교정의 열정넘친 말에도 새 학년도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를 위한 애국사업에서 더 큰 결실을 맺는 우리 교육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그러졌다.

본사기자 공로 혁

《모든 교원들이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파시해갈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교정의 열정넘친 말에도 새 학년도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를 위한 애국사업에서 더 큰 결실을 맺는 우리 교육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그러졌다.

본사기자 공로 혁

《모든 교원들이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파시해갈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교정의 열정넘친 말에도 새 학년도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를 위한 애국사업에서 더 큰 결실을 맺는 우리 교육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그러졌다.

본사기자 공로 혁

《모든 교원들이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파시해갈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교정의 열정넘친 말에도 새 학년도와 더불어 조국의 미래를 위한 애국사업에서 더 큰 결실을 맺는 우리 교육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그러졌다.

본사기자 공로 혁

한생을 참된 교육자로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락량구역 승리고급중학교 교장 김석렬동무는 지난 40여 년간 불타는 총정열을 안고 교단을 빛내어오셨다.

학교를 수직자에 걸려 위대한 장군님의 간사를 받아안은 학교로, 교육사업에서도, 교육조건과 환경에서도 전국의 본보기인 3중영예의 붉은기학교로 빛내

어는 나날에 로력영웅, 인민교원으로서의 선진시대 공로자로 성장한 그의 간결한 삶은 교육자로서의 인생의 영광이 어떻게 오를가를 가슴뜨겁게 새겨보게 한다.

학교를 수직자에 걸려 위대한 장군님의 간사를 받아안은 학교로, 교육사업에서도, 교육조건과 환경에서도 전국의 본보기인 3중영예의 붉은기학교로 빛내

어는 나날에 로력영웅, 인민교원으로서의 선진시대 공로자로 성장한 그의 간결한 삶은 교육자로서의 인생의 영광이 어떻게 오를가를 가슴뜨겁게 새겨보게 한다.

학교를 수직자에 걸려 위대한 장군님의 간사를 받아안은 학교로, 교육사업에서도, 교육조건과 환경에서도 전국의 본보기인 3중영예의 붉은기학교로 빛내

어는 나날에 로력영웅, 인민교원으로서의 선진시대 공로자로 성장한 그의 간결한 삶은 교육자로서의 인생의 영광이 어떻게 오를가를 가슴뜨겁게 새겨보게 한다.

학교를 수직자에 걸려 위대한 장군님의 간사를 받아안은 학교로, 교육사업에서도, 교육조건과 환경에서도 전국의 본보기인 3중영예의 붉은기학교로 빛내

어는 나날에 로력영웅, 인민교원으로서의 선진시대 공로자로 성장한 그의 간결한 삶은 교육자로서의 인생의 영광이 어떻게 오를가를 가슴뜨겁게 새겨보게 한다.

학교를 수직자에 걸려 위대한 장군님의 간사를 받아안은 학교로, 교육사업에서도, 교육조건과 환경에서도 전국의 본보기인 3중영예의 붉은기학교로 빛내

어는 나날에 로력영웅, 인민교원으로서의 선진시대 공로자로 성장한 그의 간결한 삶은 교육자로서의 인생의 영광이 어떻게 오를가를 가슴뜨겁게 새겨보게 한다.

학교를 수직자에 걸려 위대한 장군님의 간사를 받아안은 학교로, 교육사업에서도, 교육조건과 환경에서도 전국의 본보기인 3중영예의 붉은기학교로 빛내

어는 나날에 로력영웅, 인민교원으로서의 선진시대 공로자로 성장한 그의 간결한 삶은 교육자로서의 인생의 영광이 어떻게 오를가를 가슴뜨겁게 새겨보게 한다.

학교를 수직자에 걸려 위대한 장군님의 간사를 받아안은 학교로, 교육사업에서도, 교육조건과 환경에서도 전국의 본보기인 3중영예의 붉은기학교로 빛내

어는 나날에 로력영웅, 인민교원으로서의 선진시대 공로자로 성장한 그의 간결한 삶은 교육자로서의 인생의 영광이 어떻게 오를가를 가슴뜨겁게 새겨보게 한다.

학교를 수직자에 걸려 위대한 장군님의 간사를 받아안은 학교로, 교육사업에서도, 교육조건과 환경에서도 전국의 본보기인 3중영예의 붉은기학교로 빛내

어는 나날에 로력영웅, 인민교원으로서의 선진시대 공로자로 성장한 그의 간결한 삶은 교육자로서의 인생의 영광이 어떻게 오를가를 가슴뜨겁게 새겨보게 한다.

학교를 수직자에 걸려 위대한 장군님의 간사를 받아안은 학교로, 교육사업에서도, 교육조건과 환경에서도 전국의 본보기인 3중영예의 붉은기학교로 빛내

어는 나날에 로력영웅, 인민교원으로서의 선진시대 공로자로 성장한 그의 간결한 삶은 교육자로서의 인생의 영광이 어떻게 오를가를 가슴뜨겁게 새겨보게 한다.

학교를 수직자에 걸려 위대한 장군님의 간사를 받아안은 학교로, 교육사업에서도, 교육조건과 환경에서도 전국의 본보기인 3중영예의 붉은기학교로 빛내

어는 나날에 로력영웅, 인민교원으로서의 선진시대 공로자로 성장한 그의 간결한 삶은 교육자로서의 인생의 영광이 어떻게 오를가를 가슴뜨겁게 새겨보게 한다.

학교를 수직자에 걸려 위대한 장군님의 간사를 받아안은 학교로, 교육사업에서도, 교육조건과 환경에서도 전국의 본보기인 3중영예의 붉은기학교로 빛내

# 입부리를 놀리려면 제코부터 씻으라

얼마전 도이쾰란트행각에 나섰던 남조선집권자가 가는 곳마다에서 정치만화를 연출하여 세상사람들의 조소와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박근혜는 체면도 없이 도이쾰란트통일에 대해 《애울것》이 많다는, 《모범》을 드리고싶다는 하며 야망을 펼쳤는가 하면 《연설》이랍시고 그 무슨 《통일구상》이니 뭐니 하면서 회백계 놀아냈다. 더우기 어찌구무없는 남조선집권자가 《경제년》이니, 《애고품》이니 하고 우리의 현실을 터무니없이 외곡하며 입신부와 아이들에 대해 격정하는듯이 생색을 내었다. 체코도 못 씻는게 남의 부뚜막 걱정한다고 참으로 가소롭다.

박근혜가 이번에 오를처럼 쏟아낸 망발과 그의 추한 행실은 사리와 진실을 따지기에 앞서 혐오감과 환멸부리 자아낸다. 차마를 두르고 60이 넘도록 정치를 배웠다는 고 교착해 남이 써준것을 가지고 악당같이 하는것뿐이니 나이를 하더라도 못먹어도 더럽게는 못먹었다.

남조선집권자가 《경제년》이니 뭐니 하고 우리를 마구 비방한것은 동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다. 그래도 황색이 해동평원인데 우리에 대해 몰라도 너무도 모르고있는것이 놀랍기 그지없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마시령속도》를 창조한 기세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나가고있다. 문수람을 높이장과 마시령스키장을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고 인민적정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창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으며 문화건설 분야에서도 눈부신 비약을 안아오고

있다. 이 벽한 현실도 제대로 볼줄 모르는 눈은 소경이 정치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는가. 그런 속물에게서는 바본소리가 나올래야 나올수 없다. 더우기 《행렬동물》, 《열을공주》로 소문난 그가 입신부와 아이들에 대해 입에 올리는것자체가 격에 맞지 않는 노릇이다. 박근혜가 우리 공화국의 녀성들과 아이들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 그따위 허튼 나발을 불어대는가. 하긴 시집도 못 가고 아이도 낳아본적이 없는 박근혜로서는 행복에 눈물짓는 인간들의 고상한 세계를 알수 없으며 리해할수도 없다. 지난 《대통령》선거때 남조선집권자가 《자식기르는것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면서 온갖 감언리설을 늘어놓았지만 사람들은 이 괴벽한 로치녀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다. 그것은 당연한것이였다. 예측한바대로 그는 자기의 그 공약을 서슴없이 파기하여 지금도 남조선 각계의 저주, 규탄의 대상이 되고있다. 이런 박근혜가 그 누구를 걱정하고 위한다는것이 말이나 되는가.

모순과 허위를 가득한 박근혜의 악담이 얼마나 듣기 민망스러웠으면 남조선인민들까지도 지금이 어느때인데 그따위 소리를 하는가고 하면서 박근혜와 그에게 외곡된 정보를 섭거바친 측근들을 비난하였는가. 부끄러운줄 모르는것보다 더 큰 악은 없다고 하였다. 원래 박근혜는 머리에 든것이 없고 주견도 없다나니 남이 써준것을 그대로 외위하여 《수형공주》로 불려우고있다. 그것으로 하여 이미 네 메를란트에서 특특히 망신당하였으면 도이쾰란트에서는 입타물고 가만

있을노릇이지 또다시 정보원제거리들의 각본에 따라 꼭두각시노릇을 하였으니 그야말로 제 얼굴에 침뱉은셈이다. 그는 세상형편이 어떻게 돌아가고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는 우물안의 개구리가 분명하다. 그렇기 싫었다면 어떻게 사람이 되기를 그만둔지 오랜 인간스레기들의 악담과 모략의 소굴에서 꾸며진 자료를 아무 거르낌없이 외위대면서도 수치를 모르겠는가. 남조선항간에서 애당초 시집도 못 가본 개집이 정치협잡과 《애비의 덕》으로 청와대안방자를 차지하였다고 야유, 조소하고있는것이 결코 우연해보이지 않는다.

그런 주제에 그 무슨 《통일구상》에 대해 떠들며 노숙을 부렸는데 그야말로 역겹기 그지없다. 집권해서 줄곧 외세를 찾아다니며 그 누구의 《행위협약》, 《도발》이니, 《제제》라고 하며 반공화국제정공조를 부르고있고 남조선에 미국의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동족을 해치기 위한 핵전쟁도발책동에 미쳐들어가게 한 그가 무슨 체면에 《통일구상》이니 뭐니 하며 제 잘거리는가.

사실 박근혜가 추구하는 《통일》은 우리의 존엄을 사상과 제도를 해치기 위한 반민주적인 《제제통일》이다. 그런 흉악한 속심을 품고있으면서도 《통일구상》이니 뭐니 하고 떠들었으니 그야말로 낮가죽이 두꺼워도 보통 두껍지 않다.

그가 너스레를 떨며 그 누구에 대해 《헌원》이니, 《공동번영》과 《공동성명》이니 하고 떠드는데는 본질도 못 찾은 소리이다. 지금까지 남조선 당국은 각계층의 북남민간교류와 배

왕을 사사건건 가로막아나섰으며 지어 개성공업지구에서 로동자들의 생활비를 몇천 올리려는것마저 외면해왔다. 이런자들이 이제 와서 《공동번영》이니, 《공동성명》이니 하고 여론을 오도하는것이야말로 허위와 기만의 극치이다.

그따위 뇌절한 수작을 늘어놓기에 앞서 제코나 씻는것이 좋을것이다. 남조선에서 경제과국과 민생과관으로 자살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대동적인 항의와 시위투쟁이 매일과 같이 계속되고있는데 남을 넘겨다볼 처지가 되지는가.

제 주제를 감히 우리를 모독하며 《통일》에 대해 이러저러거룩 칭송수설한것은 불안감과 위기의식의 발로이다. 박근혜는 반공화국교집합책동에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군사적위력이 날로 강화되는 반면에 저들내부에서는 지방자치제거를 앞두고 각계의 반 《정부》투정으로 정치적혼란이 심화되어서 여론의 이목을 떠돌고 위기에 빠져 헤어나기 위해 그런 유지한 정치만화를 연출하였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 공화국을 헐뜯으며 정치모략에 매달려도 소용이 없다. 박근혜는 이번 도이쾰란트행각으로 북남대결에 환장하고 《제제통일》 야망실현에 미쳐들아가는 자기의 추악한 몰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남조선집권자가 이번 행각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계속 대결을 추구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북남관계의 파국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최 철 순

# 일본의 따귀를 치는 증거문서

언제든지 반드시 밝혀지는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최근 일본군성노예범죄가 조직적으로 감행되었음을 증명하는 미군문서들이 공개되었다. 그중 하나는 1945년 4월 4일 밤(당시 버마)에서 체포된 일본군포로에 대한 심문내용을 기록한것이다. 문서에는 일본군이 만마의 여러곳에 《위안소》들을 두고 운영해온 사실을 인정한 포로의 진술내용이 기록되어있다.

문서에 따르면 미군당국은 포로에게 《부대시설》의 하나로서 《위안소》를 두고있는지를 심문했으며 《위안소》를 두고있었다는 진술을 받았다. 1945년 5월 13일 중국 평명지역에 있던 미군소대가 작성한 다른 문서를 보면 당시 일본군 군의관이 매주 금요일 중국 만주의 한 《위안소》를 찾아가 정기검진을 하였다. 그때 《위안소》에는 조선인성 130명을 비롯하여 150명의 녀성들이 성노예로 끌려와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성병에 걸려있었다고 한다. 문서는 《군의관은 성병이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병사집대를 허가하지 않도록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런에 과거 일제의 성노예범죄의 진상을 폭로하는 일본의 증거자료들이 또다시 공개됨으로써 지난 세기 일본이 저지른 특대형반인륜범죄가 제대로 부정할수 없는 역사적사실이라는것이 다시 한번 명백히 확정되었다. 문서는 일본이 저들의 과거죄행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실을 부인하면서 침략력사를 정당화해나가고있는것이 드러났다.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다.

지금까지 성노예범죄를 비롯하여 과거 일제의 죄의 역사를 낱알이 고발되는 증거자료들은 수없이 발견되었다. 지난해에만도 일제의 천인공노할 성노예범죄가 정부와 군부가 조직적으로 감행한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적지 않게 공개되었다.

지난해 8월 2일 일본군 《위안소》에서 일하던 한 조선사람이 쓴 일기와 1945년 당시 대한군총사령부부 작성한 《일본군위문서실》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공개되었는데 9월과 10월사이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인도네시아에서 있는 일본군 장교 5명에 대한 재판 기록과 범죄자들의 진술내용이 기록된 문서가 폭로되었다.

올해에 들어와서는 중국의 길림성에서 일본군 성노예범죄에 일본정부가 관여하였다는것을 증명

하는 32건의 문건자료들이 새로 발굴되었다. 모든 자료들은 과거 일제가 저지른 성노예범죄가 절대로 정당화될수 없는 특대형반인륜범죄임을 여지없이 립증하고있다. 하지만 일본의 태도는 얼마나 후안무치한가. 사죄와 배상승인령 과거범죄를 전면부정, 외곡하면서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성노예범죄에 《국가가 편여한 자료가 없다.》느니, 《돈을 바라고 매춘부들이 한 자발적인 행위》라느니, 《전쟁을 했던 어떤 나라에도 위안부는 있었다.》느니 뭐니 하며 강짜를 부리고있다.

최근에는 구일본군이 성노예범죄에 관여했다는 사실과 성노예의 모집, 이송, 관리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가 아니라 강압과 강압 등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높음도 벌어지고있다. 그야말로 일본특유의 파렴치성의 극치이며 집요하고 악랄한 사무라이적근성의 뚜렷한 표현이 아닐수 없다. 일본반동들이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거스르면 서 뻔뻔스럽게 늘어내고있는것은 결코 범죄의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들의 죄파를 물리시는 덕이 아니다.

일본반동들이 과거범죄를 한사코 부정하고 죄악의 역사를 정당화하는것은 군국화, 우경화를 다그쳐 제침야망을 거기에 실현하려는 흉악한 기도의 발로이다. 력사와 현실을 대하는 일본반동들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그들이 과거의 반인륜적범죄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기는 고사하고 그것을 답답하기 위해 이를 감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결국 죄를 죄로 감았는것이.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자신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번번이게 처신해야 한다.

현시대는 지난 세기 일제가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마음대로 관도절하고 짓밟을수 있었던 암흑의 시기가 아니다. 성노예범죄를 비롯하여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반인륜적범죄사실들은 생애를 쓴다고 하여 부정할수 없으며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지울수 없다. 세계는 제국이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행을 철저히 기록하고 증명할것이며 조목조목 따져가며 그 값을 계산할것이다.

재침의 어리석은 꿈에서 일찌감치 깨어나 과거죄악에 대한 성근한 사죄와 배상으로 나오는것이 일본이 택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리 철 혁

# 독기풍기는 요설에 천하가 노호한다

## 촌아낙네처럼 놀아대기 창피하지 않은가

박근혜가 예순이 넘었다는데 골통은 빈 장풍인척 노는 꼬락서니가 영 고글러처럼 한가지이다. 해외에 나가 나가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게 바탕색이던처럼 얼굴에 두께같은 분칠을 하고 온갖 하루에도 몇번이나 갈아입으며 치마바람을 일으켰다는데 막 구역질이 난다. 그 주제에 입진사만 바르렸어도 좀 나왔을텐데 정말 년의 그 가벼운 허바닥이 언제 봐도 문제이다.

박근혜가 독기서린 속심을 감추고 그 무슨 《통일구상》이니, 《공동번영》이니, 《공동성명》이니 하고 나발질한것은 격분스럽지만 《경제년》이 어찌되지하려 하며 우리들 약에 차서 모독한것은 더우기 참을수 없다. 약동하는 뱀으로 비약하며 인민의 고통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려는 우리 공화국을 술에 취한 놈 발고랑 남이 가는 식의 마구잡이정치로 온 남조선땅을 사람 말살 생지옥으로 만든 박근혜파가 알면 얼마나 알아서 수작질인가. 그래도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았으면 이제는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세상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줄도 알아야 하겠는데 이긴 그야말로 막무가내이다. 그렇게 촌아낙네처럼 수다스럽게 방방아질을 하기가 창피하지도 않은가.

원해 무식하고 무지한 독재방의 피흘을 물려받은데

다가 예미묘양도 없이 자라 그런지 사고도 아둔하고 언행에도 도무지 경우가 없다. 그러니 끼고도는것들이란 전랑 협잡꾼, 인간스레기 뿐이고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도 온통 악취풍기는 독설 들뿐이 아닌가. 박근혜가 시집도 못 가본 주제에 불행사남계 우리의 산모와 어린애들까지 거들었

모자라는 사람에게는 세가지 제명이 있다는 말이 있다. 모르면서도 아는체 하고 없으면서도 있는체 하며 못한 주제에 잘난체 하는것이이다. 그야말로 박근혜에게 꼭 들어맞는 말이다.

이 비루먹은 암계같은 년이 이번에 도이쾰란트에 가서 그 누구의 《경제년》이 어떨소, 《애고품》이 어떨소 하는 개나발을 붙어댄것은 그야말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아마 들뜬에서 풀을 뜯던 암소도 그 수작에는 폭소를 터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박근혜는 조국을 반역하고 부모처자를 버리고 도망간 인간스레기들의 악담과 정보원모략꾼들이 섭거바친 자료를 졸출 외워댄것으로 하여 제 주권이 없는 허수아비라고 만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있다. 이제는 낯짝에 어지간히 주름도 많이 갔겠는데 아직

는데 그런 안할 《격정》은 하지도 말고 괴피당국을 저주하며 자살의 길을 택하는 그 술한 불행한 사람들이나 찾아아가보는것이 좋을것이다. 체코도 못 씻는 머리는 판의 돌리처럼 뽀뽀 빼고 똥수없이 놀아대다가는 귀뺨을 얻어맞기 십상이다.

무는 개는 먼저 잡아치우는 법이다. 박근혜는 짧은 허바닥을 잘 못 놀라다가는 종장을 치른다 는것을 꾸미고 알아야 한다.

황해남도 신천군 룡담협동농장 작업반장 류 병 옥

까지 남이 써준 자료를 수첩에 적어가지고 다니며 중이 넘볼의우투 하고있으니 이런 천지같은 년을 전진자로 섬기는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다. 눈을 가죽이 모자라서 제 놓은것이 아니라 귀는 보기 좋다고 매달려있었는지 아니냐. 박근혜야말로 세상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제 머리에 든것도 없이 청와대위공방에 들어박혀야해졌들이 써주는 무식한 소리나 제치는 눈뜬 소경이 아닐수 없다.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나가서도 새기마련이다. 제방에서 동족을 그렇듯 악의에 차서 혈투하며 못된것만 돌아가며 하던 박근혜가 해외에 나갔다고 온 천하에 자랑하는가. 망신살이 무지개갈 뻗치듯 하는 박근혜는 말대로 남조선의 망신거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알지마나 두르고

가사나 돌보는것이 좋지 않겠는가. 나이를 그만쯤 쳐먹도록 수작질이라는것도 못 가본 부실한 전한래는 그것도 파단하다.

정 갈곳이 없으면 우리 직

늙은 암닭의 추래는 보기에도 역겹다

으로 괴피당국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와 원성이 차남치고있다. 이런 판에 체코도 못 씻으면서 미시리처럼 남에 대한 《격정》까지 허허 요설을 늘어놓았으니 그야말로 사람웃기는 노릇이 아닌가. 우리 당의 따사로운 사랑의 손길이 어려있는 《마안산》요설을 덮고 새근새근 잠든 귀여운 아이들, 영양학자요구가 충분히 보장된 월 및 주식사제회표에 따라 배를 먹고 뛰노는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기도라도 하고 주동이 집인거, 콩살, 닭알살이 올라날로 풍동동동해지는 제 얼굴을 거울에 비쳐보며 빠기던 우리 아이들이 박근혜라는 미친 로파의 그 께근한 상판에 저저마다 침을 뱉고 있다.

미국의 식민지노복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쓰고있는것은 둘째치고 인민적으로 높고 볼데 애당초 시집도 못 가보고 아이도 못 낳아본 주제에 《산모》, 《유아》니 하고 노숙을 부렸으니 그 꼴이 왕으로 가관이다. 정말 구역질이 나 못 견디겠다. 제가 언제 한번 아이들에게 따르던 밥 한끼 제 손으로 해먹인적이 있겠나 그따위 허수작질인가. 더우기 지금 남조선에서는 경제와 인민생활의 파란

장의 보이러안은 어떤가. 아마 박근혜같이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미시리에게는 참으로 부끄러워할것이다.

동맹양력발전소 열생산실장 직장장 심 삼 철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내무성이 극단주의, 경제법외와의 투쟁, 교통안전보

로씨야대통령 내무성의 과업에 대해 언급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푸틴은 24일 《소유즈-2.16》은반로케트를 발사했다.

《글로나스-M》위성을 탑재한 로케트를 발사했다. 로씨야의 한 국경초소에서 최근 33kg의 헤로인이 적발당수되고 1명의 마약밀수업자가 체포되었다.

같은 날 나이지리아와 나미비아는 원유정제공장건설에서 협조할데 대한 합의를 이룩하였다. 마약 압수 벌가리아의 한 국경초소에서 최근 33kg의 헤로인이 적발당수되고 1명의 마약밀수업자가 체포되었다. 3월 25일 이 나라 세관당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또한 나미리카경찰이 최근 요한네스부르크의 동부지역에서 반마약작전을 벌려 3의 마약을 적발입수하였다. 3월 25일 이 나라 경찰당국

수출 증가 스리랑카에서 올해 1월에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3.2% 증가하였다. 특히 옷수출이 많이 늘어났다 고 한다. 3월 25일 이 나라 중앙은행이 이에 대해 밝혔다.

국내총생산 성장 른완다에서 지난해 국내총생산이 그 전해에 비해 4.6% 성장하였다. 3월 25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이 이에 대해 밝혔다.

나미비아와 몽골이 3월 25일 두 나라사이의 협조관계를 강화할데 관한 양해각서를 채택하였다. 이에 앞서 24일 중국과 벌가리아는 7건의 쌍무무협정을 체결하고 중국의 심진시와 벌가리아의 블로브드브를 자매 도시로 만들데 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나미비아와 보츠와나가 3월 24일 두 나라를 연결하는 철도를 공동으로 건설할데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나미제리아의 목화밭

전체 인민이 단결할것을 강조

이탄이슬람교혁명지도자 세 에드 알리 카메니가 3월 26일 한 연설에서 전체 인민이 굳게 단결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지난 시기의 경험은 단결할만 모든 어려은 난국을 타개하고 적들에게 심대한 패배를 안길수 있다는것을 보여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할것을 호소

만나대통령 레인 세인이 3월 26일 국회에서 한 발언에서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정부가 년간 국내총생산

도이쾰란트의 주요도시들에서 3월 27일 처지개선을 요구하는 항공운수부문 근로자들의 파업이 일제히 벌어졌다. 7개 비행장에서 일어난 파업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당국의 부당한 경제정책에 항의하고 자기들의 임금을 올릴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파업과 시위

파업으로 비행기들의 운행이 취소되어 수많은 령객들이 조정되었다. \* 보르두갈의 리스봉에서 3월 28일 미국의 부당한 경제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로조의 호소에 따라 일어난

2015년 아시아컵 축구경기대회 조구성

2015년 아시아컵 축구경기대회 조구성을 위한 추첨식이 3월 22일 오스트랄리아의 시드니에서 진행되었다.

18개 팀이 4개 조로 나누어 벌어지는 이번 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팀은 2조에 편파되어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중국팀과 대진하게 된다. 경기대회는 다음해 1월 9일부터 31일까지 오스트랄리아에서 진행된다.

파업과 시위

파업으로 비행기들의 운행이 취소되어 수많은 령객들이 조정되었다. \* 보르두갈의 리스봉에서 3월 28일 미국의 부당한 경제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로조의 호소에 따라 일어난

시위에는 약 1000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시내거리리를 따라 행진하면서 당국이 취하고있는 긴축조치로 나라에서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있는데 대해 항의하고 그러한 조치를 당장 취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통령경호원들의 추래와 미국사회의 추악성

최근 미국이 부정추문으로 국제적인 조소거리가 되고있다. 얼마전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네메를란트를 행각하였다.

이렇게 놓고볼 때 네메를란트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미국이 통째로 만취된 나라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대통령경호원들속에서 나타난 추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오바마대통령이 국제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폴로버이를 행각하였을 때에도 경호원들이 집단적인 성매매행위를 한것으로 하여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었다. 당시 대통령경호원들속에 앞서 현지에 파견된 경호원들은 어느 한 식당에 들어가 술을 정선없이 퍼마시고는 꼬이는 다리를 걸칠쯤에 녀성들을 잡아끌고 호텔로 들어갔다. 일은 그 다음날 퍼졌다. 현지경찰들이 들이닥치자 비배한 경호원들이 엄청난 돈을 걸러주며 풍자가 뺏겨하여 달아나지 않았던 안되었다.

사건발생직후 국제적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미국비밀경호국은 진상조사를 착수하여 추문은 8명을 해고한다. 어떤가 하며 부정추문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얼마나 맹렬하였던이기에 얼마나 두려웠던이기에 비밀경호장관이 자리를 내놓으까지 했었는가.

이런에 사건이 폭로되자 미국내에서는 날로 악화된 경제위기에 대한 걱정하지 않고 많은 자금을 댄것이며 부패한 행위를 일삼는 대통령경호원들과 정부에 대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비배한 비행정부가 나서서 수습책을 마련하느라 부속소동을 피우고있지만 그것은 행차치나 말자이다. 하다면 세계도처에서 편이러 발생하고있는 부정추문사건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것을 알지 못해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

사건발생직후 국제적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미국비밀경호국은 진상조사를 착수하여 추문은 8명을 해고한다. 어떤가 하며 부정추문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얼마나 맹렬하였던이기에 얼마나 두려웠던이기에 비밀경호장관이 자리를 내놓으까지 했었는가.

이런에 사건이 폭로되자 미국내에서는 날로 악화된 경제위기에 대한 걱정하지 않고 많은 자금을 댄것이며 부패한 행위를 일삼는 대통령경호원들과 정부에 대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비배한 비행정부가 나서서 수습책을 마련하느라 부속소동을 피우고있지만 그것은 행차치나 말자이다. 하다면 세계도처에서 편이러 발생하고있는 부정추문사건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것을 알지 못해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

이제 리익에 부합되면 정당하다는 미국식 《가치판별》을 들은 미군병사들의 페퍼페더와 피페적인 행위에 대한 조소와 비난은 갈수록 커지고있다. 어느때인가 일본의 오키나와 주둔 미해병대원들이 20대녀성을 집단강간한 사건, 미해병대원 4명이 아프리카나탄인로시체에 대고 집단적으로 오줌을 싸면서 히히거던 사건으로 세상사람들을 놀레운것은 미국식생활양식의 야만성의 일단을 보여준다.

남로 성행하는 미국의 특급추행사건들은 각각각색이며 이로 하여 미국은 국제적인 조소거리로, 규탄과 배제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이번 미국대통령 경호원들의 추태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라 썩고 병든 미국식 자본주의의 반동성과 반인륜성이 가져온 필연적산물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신 경 섭

사건발생직후 국제적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미국비밀경호국은 진상조사를 착수하여 추문은 8명을 해고한다. 어떤가 하며 부정추문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얼마나 맹렬하였던이기에 얼마나 두려웠던이기에 비밀경호장관이 자리를 내놓으까지 했었는가.

이런에 사건이 폭로되자 미국내에서는 날로 악화된 경제위기에 대한 걱정하지 않고 많은 자금을 댄것이며 부패한 행위를 일삼는 대통령경호원들과 정부에 대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비배한 비행정부가 나서서 수습책을 마련하느라 부속소동을 피우고있지만 그것은 행차치나 말자이다. 하다면 세계도처에서 편이러 발생하고있는 부정추문사건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것을 알지 못해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

이제 리익에 부합되면 정당하다는 미국식 《가치판별》을 들은 미군병사들의 페퍼페더와 피페적인 행위에 대한 조소와 비난은 갈수록 커지고있다. 어느때인가 일본의 오키나와 주둔 미해병대원들이 20대녀성을 집단강간한 사건, 미해병대원 4명이 아프리카나탄인로시체에 대고 집단적으로 오줌을 싸면서 히히거던 사건으로 세상사람들을 놀레운것은 미국식생활양식의 야만성의 일단을 보여준다.

남로 성행하는 미국의 특급추행사건들은 각각각색이며 이로 하여 미국은 국제적인 조소거리로, 규탄과 배제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이번 미국대통령 경호원들의 추태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라 썩고 병든 미국식 자본주의의 반동성과 반인륜성이 가져온 필연적산물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신 경 섭

추래와 미국사회의 추악성

최근 미국이 부정추문으로 국제적인 조소거리가 되고있다. 얼마전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네메를란트를 행각하였다.

이렇게 놓고볼 때 네메를란트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미국이 통째로 만취된 나라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대통령경호원들속에서 나타난 추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오바마대통령이 국제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폴로버이를 행각하였을 때에도 경호원들이 집단적인 성매매행위를 한것으로 하여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었다. 당시 대통령경호원들속에 앞서 현지에 파견된 경호원들은 어느 한 식당에 들어가 술을 정선없이 퍼마시고는 꼬이는 다리를 걸칠쯤에 녀성들을 잡아끌고 호텔로 들어갔다. 일은 그 다음날 퍼졌다. 현지경찰들이 들이닥치자 비배한 경호원들이 엄청난 돈을 걸러주며 풍자가 뺏겨하여 달아나지 않았던 안되었다.

사건발생직후 국제적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미국비밀경호국은 진상조사를 착수하여 추문은 8명을 해고한다. 어떤가 하며 부정추문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얼마나 맹렬하였던이기에 얼마나 두려웠던이기에 비밀경호장관이 자리를 내놓으까지 했었는가.

이런에 사건이 폭로되자 미국내에서는 날로 악화된 경제위기에 대한 걱정하지 않고 많은 자금을 댄것이며 부패한 행위를 일삼는 대통령경호원들과 정부에 대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비배한 비행정부가 나서서 수습책을 마련하느라 부속소동을 피우고있지만 그것은 행차치나 말자이다. 하다면 세계도처에서 편이러 발생하고있는 부정추문사건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것을 알지 못해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